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Driving Tomorrow*

HELLO NEXEN

HELLO NEXEN MAGAZINE

신년호 2020 Vol.78



www.nexentire.com



CONTENTS

N'exen



- 06 뉴 Start
넥센타이어, 미국 R&D센터 준공식 개최
- 08 넥센 Issue 1
넥센타이어,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 CEO 간담회
- 10 넥센 Issue 2
2019년 임금교섭 조인식 개최
- 12 넥센 Issue 3
THE BETTER R&D를 향한 첫걸음
- 14 넥센 Issue 4
양산 전국 하프 마라톤 대회
- 16 넥센 Issue 5
맨시티 우승 트로피 전시회 성료
- 18 넥센 Issue 6
제45회 국가품질경영대회 대통령상 수상
- 20 넥센 Issue 7
'제56회 무역의 날' 10억 불 수출탑 수상
- 22 넥센 Issue 8
THE NEXEN UniverCITY의 수상 히스토리
- 24 넥센 Issue 9
2019 하반기 입문 교육
- 26 넥센 Together 1
넥센人 김장 프로젝트
- 32 넥센 Together 2
지역주민과 함께한 송년음악회 성료
- 34 넥센 Together 3
아빠와 함께 1박 2일 캠핑



2020 Vol.78

표지 이야기
2020년의 "NEW START"를 넥센타이어가 열어갑니다. 새해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나갈 넥센인을 응원합니다.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Driving Tomorrow NEXEN* 2020년 신년호 통권 78호
정보간행물 신고번호 양산, 비00008 신고일자 2016년 9월 29일 발행인 강호찬
발행일 2020년 1월 2일 발행처 경남 양산시 흥렬로 355 넥센타이어(주) 담당 문화혁신팀
기획 및 출판 (주)하이미디어P(02-795-3364) 디자인 홀소너, 김지에 사진 사진과책
교정 이은실 프로세스 (주)하이테크컴 (02-741-3377) 인쇄 아트프린팅(주)

이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은 작가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넥센타이어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을 재사용하려면 <별로우 넥센>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N'dorph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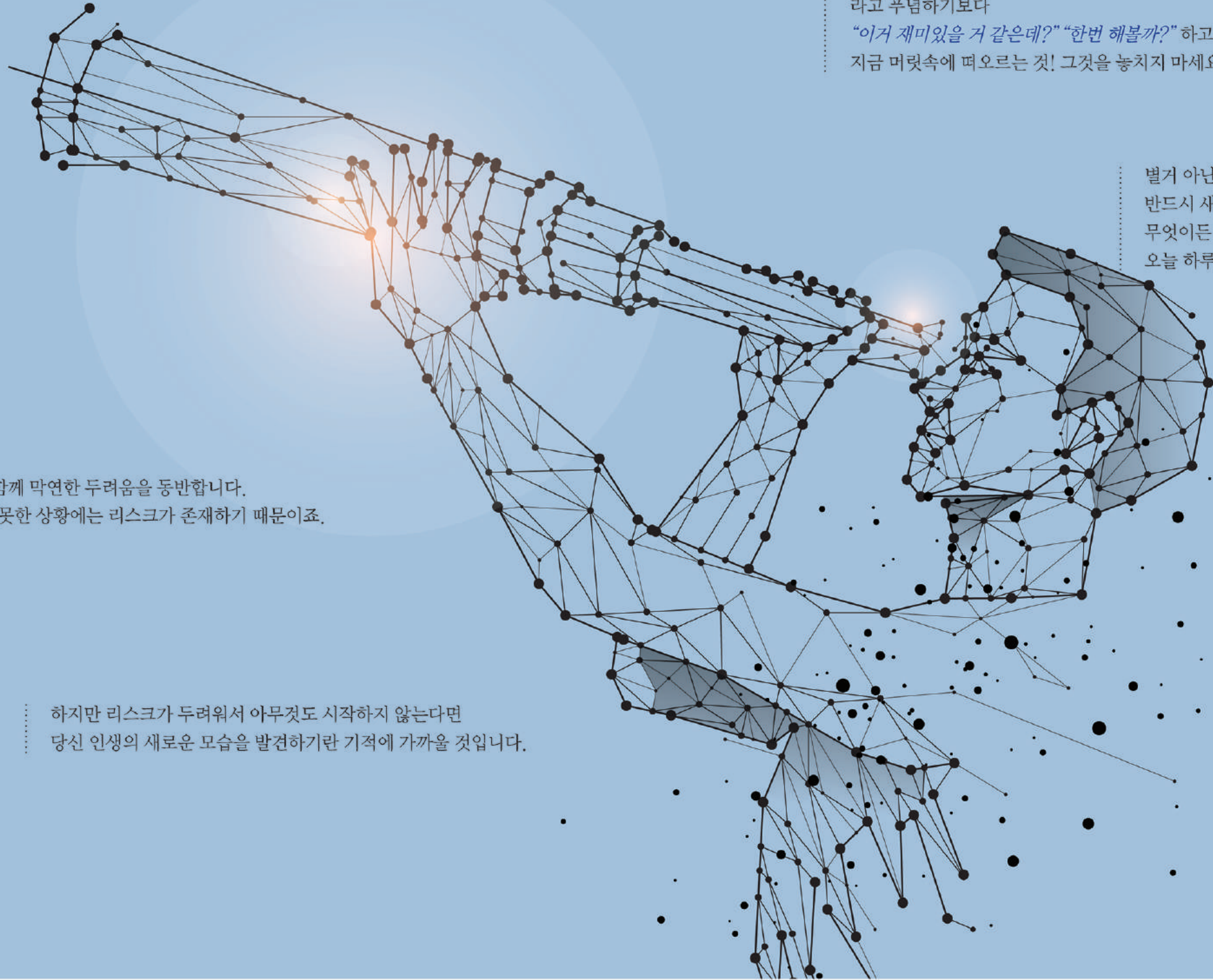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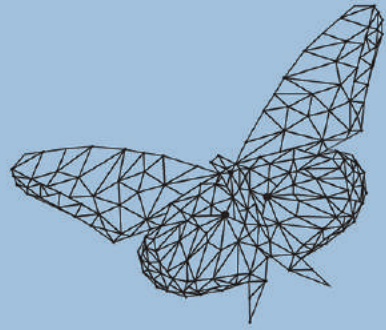


N'otice



- 40 테마 Story
삶을 바꾸는 관점
- 44 나의 Life Of Art
나의 인생작
- 48 컬처 Road
넥센인을 위한 문화생활
- 52 엔터 Travel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곳, 창녕 우포늪
- 58 넥센 Quiz
사보 속에 숨어 있는 정답을 찾아라

- 62 설문 Survey
넥센인의 새해는 어떤가요?
- 64 챗 Chat
동료와의 에피소드 대방출
- 66 문화 Dine Together
우리는 이렇게 회식합니다!
- 70 사진 Gallery
조금 특별한 나만의 이색 취미
- 74 타이어 Tech
타이어테크 양재점
- 78 넥센 News
- 82 참여안내



..... “요즘 인생이 너무 재미없어.” “맨날 쳇바퀴지 뭐. 별거 있어?”
 라고 푸념하기보다
 “이거 재미있을 거 같은데?” “한번 해볼까?” 하고 시작해보세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 별거 아닌 것이라도 당신의 새로운 시작은
 반드시 새로운 결말을 맺을 것입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오늘 하루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보세요.

..... 새로운 시작은 묘한 설렘과 함께 막연한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해보지 않은 일,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 하지만 리스크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다면
 당신 인생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기란 기적에 가까울 것입니다.

넥센타이어, 미국 R&D센터 준공식 개최

멈추지 않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넥센타이어의 새로운 역사 현장을 함께해보았다.

글/사진 넥센타이어 미국 R&D센터 보도자료



11월 13일 넥센타이어의 미국 R&D센터 준공식이 있었다. 넥센타이어는 오하이오주 리치필드에 위치한 미국 R&D센터에서 북미 완성차 업체들을 위한 OE 타이어 및 교체용 타이어 제품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준공식에는 넥센타이어 강호찬 부회장을 비롯한 리치필드 시장 바비 베샤라(Bobbie Beshara), 미국 완성차 업체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조 웰치(Joe Welch), 댄 와이사키(Dan Wysocki), 넥센타이어 북미 지역 김중선 BS장, 넥센타이어 미국 R&D센터 이동윤(Don Lee) BS장, 센터의 설계 및 공사 감독을 담당할 전(前) 넥센 엔지니어 게리 졸튼(Gary Zolton)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강호찬 부회장은 "새롭게 신축한 R&D센터를 통해 최상 품질의 OE 타이어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북미 소비자 및 파트너사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미국 소비자들 이번 R&D센터 개관을 북미 지역에 대한 넥센타이어의 꾸준한 관심의 증거로 봐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㉞

넥센타이어,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 CEO 간담회

글/사진 인사팀 김재영 책임

10월 18일, THE NEXEN univerCITY에서 넥센타이어 CEO인 강호찬 부회장과 각 부서 팀장들의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진행은 이진만 전략기획 BS장이 맡았으며, 전사의 국내 팀장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시작 전에 회사의 현재와 미래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리더십 교육을 실시해 각 팀장들은 올바른 리더의 모습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는 자유토론으로 각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내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팀 운영 고민을 공유하며 서로 소통하고, 각자가 멘토·멘티가 되어 best practice를 찾아보고자 하는 자리였다. THE NEXEN univerCITY 중정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리프레시할 있었으며, CEO와 팀장들 간에 격없는 대화와 의견을 나눔으로써 소통과 공감의 형성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글/사진 문화혁신팀 김희진 선임

강 부회장과 팀장들의 만남에 이어 약 한 달 후인 11월 21일, THE NEXEN univerCITY 1층 북카페에서는 강 부회장과 직원들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간담회가 마련되었다. 2018년 입사자 중 마곡 근무 직원 20명이 참석해 입사 후 소감, 이전 사업장 근무지 대비 변화된 분위기, 세대 차이 극복 및 해결 방안, 넥센타이어가 나아갈 방향 등의 안건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했다.

넥센타이어는 더 나은 넥센타이어를 만들기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좀 더 현실적인 시각으로 회사 발전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2019년 임금교섭 조인식 개최

글 노사협력팀 맹치훈 선임 사진 YP기업문화팀 김철홍 선임



넥센타이어 노사 대표(강호찬 부회장, 박주홍 노동조합 위원장)는 10월 28일, 양산본사에서 2019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체결했다. 노사 양측은 2019년 6월 12일 임금교섭 상건례를 시작으로 4개월간 총 8차례의 교섭을 거치면서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 조인식 체결에 이르렀다.

2019년 임금교섭은 대외적으로 자동차 업계 영업이익 감소 등의 경기 불황, 유럽 공장과 THE NEXEN univerCITY 운영을 통한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출발했다. 노사 양측은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과 노사 간 신뢰와 상생이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28년 연속 무분규 교섭 타결 기록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㉞



The Better R&D를 향한 첫걸음

Saving Time을 소개합니다!

글/사진 연구운영팀 김수민 연구원

보고와 회의를 간단하게!
보고는 종이가 아닌 모니터 화면으로, 협의는 핵심만 정확히

- 모니터 사용 : 프린트 금지
- 회의 시 집중 : 스탠딩 회의 도입, 구글 타이머 사용

업무 협조와 문의는 신속하게!
요청 사항은 한눈에, 담당자 확인은 쉽도록

- 업무 요청 : 업무협조전 표준양식 준수
- 담당자 확인 : 주요 업무 및 부재 현황 포털로 공유

주간 업무 작성은 간략하게!
업무 현황보다 주요 이슈에 집중

- 팀별 주간 업무는 이슈 중심으로 작성
- 기술 정보는 NEPS로 확인



연구소에서는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활동인 'Saving Time'을 2019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외(미국/중국/독일/체코) 연구소의 구성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글/영문 버전으로 Guide를 제작해 배포했다.

'Saving Time'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아이템은 '보고와 회의를 간단하게!'다. 보고는 종이가 아닌 모니터 화면을 이용하고, 협의는 스탠딩 회의와 구글 타이머 사용을 장려해 보고와 회의 방식을 바꾸었다.

두 번째 아이템은 '업무 협조와 문의는 신속하게!'로 육하원칙 기반의 업무협조전 표준양식을 준수해 요청 내용의 이해와 실행력을 높이고, 주요 업무 및 부재 현황을 포털로 공유해 담당자 확인을 용이하게 했다.

마지막 아이템은 '주간 업무 작성은 간략하게!'다. 기술 정보는 NEPS 시스템을 통해 보고함으로써 매주 작성하는 주간 보고의 작성 시간을 단축하고 연구소 주요 이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The Better R&D를 향한 여정은 계속된다! "2nd Step to be continued~." ⑩



양산 전국 하프 마라톤 대회
완주를 향해
RUN RUN

글/사진 YP기업문화팀 김가현 선임



12월 1일 양산공설운동장에서 제15회 양산 전국 하프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에 7,000여 명의 러너들이 모였으며, 넥센타이어 임직원 및 가족 158명도 참가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3km는 미취학 자녀들과 함께 뛸 수 있어 많은 임직원 가족들이 참가해 추억을 만들었다. 우천으로 인해 힘들었지만, 참가한 임직원 모두 각자 기량을 뽐내며 무사히 완주했다. 참가한 임직원 및 가족들은 샌드위치와 음료를 먹으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






THE NEXEN univerCITY에서

맨시티 우승 트로피 전시회 성료

글 문화혁신팀 김희진 선임 사진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 박남도 사원

넥센타이어가 10월 4일 THE NEXEN univerCITY에서 공식 파트너 맨체스터 시티 FC(이하 맨시티)의 트로피 투어 이벤트를 진행했다. 맨시티는 지난 프리미어 리그 2018~19 시즌에서 우승하며 2년 연속 리그 우승을 달성했으며, FA컵, 커뮤니티실드, 카라비오컵에서 우승하며 4관왕을 차지했다. 맨시티 여자팀도 여자 FA 리그컵, FA WSL 콘티넨탈컵 등 2관왕을 거머쥐 맨시티는 남녀 리그 총합 6개의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글로벌 트로피 투어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한 맨시티는 10월 4일 THE NEXEN univerCITY를 방문해 트로피 전시 및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성공적인 지난 시즌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맨시티 레전드 선수 손 라이트 필립스가 참여해 넥센타이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인회와 사진 촬영은 물론 이벤트를 통해 우승자에게 사인볼도 증정했다. 넥센타이어 직원들은 이 사인볼을 갖기 위해 손 라이트 필립스 선수 따라 하기 이벤트에 참여해 볼꽃 튀는 경쟁을 벌였다. 더불어 사전 이벤트로 응모권 추첨을 통해 구디백, 에코백 등 다양한 선물을 임직원들에게 증정했다. 



양산, 창녕공장 분임조

제45회 국가품질경영대회 대통령상 수상

글/사진 CP생산관리팀 김중호 책임

제45회 국가품질경영대회 The 45th National Quality Management Convention



11월 13일, 2019년 제45회 국가품질경영대회가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렸다. 본 대회는 제조 및 서비스 산업에서 품질 향상,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 탁월한 품질경영 활동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 및 기업을 포상하고, 성과가 우수한 현장 근로자 격려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연도에는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금상 1팀(양산공장 뿔방울 분임조), 은상 1팀(창녕공장 명품 분임조), 동상 1팀(창녕공장 가람 분임조)을 수상하였으며, 전년도 양산공장에 이어 창녕공장 1호 국가품질명장으로 재료파트 유경열 직장이 선정되어 수상식을 빛냈다. ㉞





넥센타이어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6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10억 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넥센타이어는 "품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초고성능 타이어(UHPT) 등 프리미엄 제품의 판매 증가와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한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힘입어 10억 불 수출탑을 수상했다"고 10월 5일 밝혔다.

넥센타이어는 1995년 1억 불 수출탑을 수상한 이후 꾸준히 해외 각국을 대상으로 타이어를 수출해 2018년에는 9억 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전 세계 180여 개국 900여 달러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온 넥센타이어는 수출이 전체 매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한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자동차 시장 위축, 업체 간 경쟁 심화 속에서도 넥센타이어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제품 경쟁력을 강화한 결과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매출 증가를 달성했으며, 각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 전략을 펼치며 수출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이날 10억 불 수출탑 수상과 함께 유성완 두바이 지점장이 대통령표창을, 정복섭 양산공장 생산2팀장이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㉞



아름다운 건축물

THE NEXEN univerCITY의 수상 히스토리

글/사진 자산개발팀 권승규 수석

1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11월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9 녹색건축한마당' 공식 행사에서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대상 수상.



올해로 8회를 맞은 국토교통부 주최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해 녹색건축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과 저변 확대를 위해 녹색건축 우수 사례를 발굴해 그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수상작은 환경을 생각하고 인간을 위한 대한민국 대표 녹색건축물로 인정받게 된다.

녹색건축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한 THE NEXEN univerCITY에 대해 심사위원장(김강수 고려대 교수)은 "재료(유리)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해 기능적 부분뿐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에 맞춘 외관 디자인이 매우 인상적인 건물이다. 도심지 내 상업 공간으로서 재실자를 위한 내부 중정 및 외부 램프가 옥상까지 연결된 조경 공간은 매우 자연 친화적이다. 종합적으로 건축물 곳곳에 다양한 패시브 요소와 신재생 에너지 기술 등을 도입한 통합 설계로 높은 수준의 녹색건축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평했다.

2 한국건축문화대상



11월 28일 서울 코엑스 B2홀에서 열린 2019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준공건축물부문 우수상 수상.



1992년 제정돼 올해로 28회를 맞이한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서울경제신문이 공동 주최하며 대한건축사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건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4 서울시건축상



9월 6일 제37회 서울시건축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건축상'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며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 환경을 장려하기 위한 상이다. 올해는 총 133건(일반건축 123작, 녹색건축 10작)의 수준 높은 작품들이 응모된 가운데 대상 1작품, 최우수 4작품, 우수작 6작품을 선정했다.

3 WAN Awards



2019년 WAN Awards의 COMMERCIAL (OVER 50,000 SQM) 카테고리에서 은상 수상.



'WAN Awards'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 건축상으로, 건축가와 건축비평가 등 건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뛰어난 디자인의 건축 작품에 수상하고 있다.

5 BIM Awa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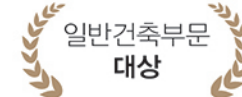


11월 19일 BIM Awards 2019에 출품한 일반부문-건축분야에서 우수상 수상.



국토교통부, (사)빌딩스마트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국내 최대 BIM 공모전인 'BIM AWARDS'는 건설 분야의 BIM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한국 건설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을 제고한다. ㉞

6 아주경제 건설대상



7 제10회 대한민국 그린건설대상



8 제15회 대한민국 토목건축기술대상





주신 선배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비전 드로잉에 대한 소감을 전달했다. 재료연구팀 정지호 선임연구원은 5일간의 입문 교육을 마치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교육 기간 동안 넥센타이어의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확실한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었던 뜻깊은 교육이었습니다. 동기들과 선배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넥센타이어에서의 포부를 담은 소감을 남겼다.

신입사원 15명은 12월 9일 THE NEXEN univerCITY로 첫 출근해 넥센인으로서의 도약을 시작했다. 앞으로 회사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순간도 있고, 힘든 순간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넥센타이어 입문 교육 입소 전날, 그리고 THE NEXEN univerCITY로 첫 출근하기 전날 부푼 기대를 안고 잠들었던 그때 그 심정을 잊지 말고 본인의 비전을 위해 달려나가길 응원한다. ㉞

“신입사원 여러분,
넥센타이어에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넥센타이어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 프로그램 2019 하반기 입문 교육

글/사진 인재개발팀 이도연 사원

지난 연말 넥센타이어에 신선한 바람이 불었다. 그 주인공은 바로 15명의 신입사원들이다. 신입사원들은 12월 2일부터 5일간의 입문 교육을 통해 넥센인으로서 첫발을 내딛었다. 넥센타이어의 역사는 물론이고 타이어 기초지식, 창녕공장 및 대구PG 견학 등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특히 동기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셀프 스피치는 신입사원들의 톡톡 튀는 개성과 창의력을 엿볼 수 있는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입문 교육 마지막 날에는 5일간의 교육 내용을 토대로 넥센타이어에서의 비전을 그림으로 형상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Compound개발팀 김준형 사원은 “서로가 생각하는 회사의 비전을 자유롭게 표현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4개 조가 각자의 조각을 합쳐 하나의 큰 그림으로 완성되었을 때, 우리 개개인은 본인만의 개성이 있지만 넥센타이어라는 곳에서 공동의 목표를 갖고 나아가는 동료라는 점을 새길 수 있었습니다”라고 뜻깊은 시간이었음을 말해주었고, 유럽OE개발팀 신성우 사원도 “재미있는 그림 그리기를 통해 동기들과 팀워크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칭찬을 아끼지 않는 선생님들께 매우 감사하고, 재미있는 기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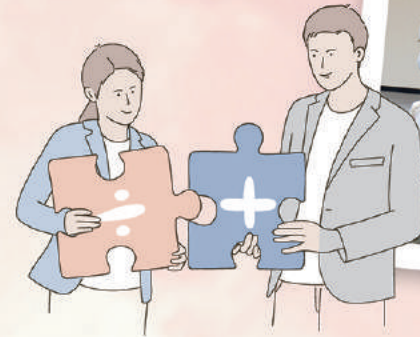


넥센인 김장 프로젝트

마음을 나누고, 정을 더하고+

○ 배추 뽑기부터 김장 양념과 직접 포장, 이웃에게 전달까지. 넥센인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장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배추를 뽑기 위해 강원도 횡성으로 떠난 마곡 넥센인들과, 양념에서 포장까지 완벽한 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양산과 창녕 넥센인들의 가슴 따뜻한 김장 현장을 함께해보자.

정리 이다영



“함께 또 같이 나눠요.” (Feat. 창녕공장)

글 문화혁신팀 김희진 선임 사진 CP기업문화팀 변상협 책임

넥센타이어가 12월 6일 창녕군민체육관에서 열린 '2019 창녕사랑애(愛) 김장나눔축제'에서 김장 담그기 및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넥센타이어 임직원이 담근 김장김치는 창녕군 저소득 계층, 독거노인 등 200여 가구에 고구마와 함께 전달되었다.

CP기업문화팀 송준우 팀장은 “창녕공장 임직원들이 함께하는 첫 김장 담그기 행사였지만 많은 분들의 준비와 도움이 있어 무사히 치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과 함께 지역 사회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저희 또 배추 뽕으러 왔습니다.” (Feat. 중앙연구소)

글 문화혁신팀 유재훈 선임

11월 15일,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THE NEXEN univerCITY 임직원들은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강원도 횡성 노구소 마을을 방문해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했다. 이른 아침부터 15명의 넥센인들이 횡성으로 가는 차에 몸을 실었다.

도착 후 넥센인들의 주 업무는 배추가 손상되지 않게 잘라 얼지 않도록 저장고로 옮기는 것이었는데, 추운 날씨 탓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진행했다. 비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넥센인들은 우의를 입고 분투하며 배추 수확 작업을 이어갔다.

작업을 마친 후에는 마을회관 앞에 삼삼오오 모여 주민들과 함께 식사 시간을 가졌다. 멀리서 온 넥센인들을 위해 마을 주민들께서 절임배추와 삼겹살을 한가득 차려주셨다. 주민분들과도 오랜만에 보는 자리여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소통의 시간을 즐겼다. 직원들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 해를 기약하며 마을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리고 봉사활동을 마무리했다.





“맛있게 드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Feat. 양산공장)

글 이다영

11월 12일, 넥센 양산공장 관리직 직원들과 봉사동호회 희망나눔미 회원들이 김장 프로젝트 '김장나누기, 행복더하기' 행사를 함께하기 위해 양산공설운동장에 모였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위생을 위한 복장을 갖추고 준비를 마친 넥센인들은 양산공설운동장 한쪽에 마련된 장소에서 본격적인 김장에 돌입했다.

“배추~!” 하고 테이블에서 외치면 배추 나르는 일을 맡은 사우들은 빠르게 배추를 옮겨 테이블에 놓고 대기하던 직원들이 빠르게 양념을 버무리려 박스에 담는다. 김치를 담은 박스는

마무리 포장과 스티커 작업을 맡은 사우들에게 전달돼 깔끔하게 한곳에 쌓여갔다. 일손이 많으니 진행은 척척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허리 펴 새 없이 작업에 열중한 사우들 덕분에 완성된 김장 박스는 어느새 허리 높이까지 쌓였다.

한 박스, 한 박스 정성스레 포장한 김장 박스에 마음을 담은 문구를 붙인 후 뒷정리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사우들은 그제야 작업복을 벗고 땀을 식히며 쌓인 김장 박스를 흐뭇하게 바라봤다. 고된 작업에 몸은 고단했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넥센인들의 정성을 담은 김치를 전달할 수 있어 마음만은 따뜻하고 풍성한 하루였다. ㉞



넥센타이어, 중앙연구소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한 송년음악회 성료

글 문화혁신팀 김희진 선임 사진 이명호



넥센타이어가 지난 12월 20일 넥센중앙연구소인 THE NEXEN univerCITY에서 송년음악회를 개최했다. 넥센타이어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지역주민과 임직원가족에게 다양한 즐길 문화를 제공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 음악회를 기획했으며 공연은 건물 내 1층 로비에서 진행됐다. 송년음악회에서는 '원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뮤지컬 배우 백성영, 소프라노 강화정 등이 초청돼 대중들에게 친숙한 크리스마스 캐롤부터 비틀즈 메들리, 'Fly to the Moon'과 같은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선사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되었다. 음악회 중 퀴즈 이벤트를 통해 현장에서 다양한 선물을 증정했다. 또한 로비에 마련된 크리스마스 트리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은 후 개인 SNS에 업로드를 한 참여자 중 추후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제공했다. 넥센타이어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㉞



회사에서 보내는 아이와의 하룻밤
아빠와 함께 1박 2일 캠핑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어느 날, 아빠와 함께 1박 2일 캠핑을 하기 위해 21명의 직원들과 그들의 아이 27명이 총출동했다. 아빠와 아이 모두에게 좋은 추억으로 기억될 '아빠와 함께 1박 2일' 행사에 함께해보자.

—
 글 이다영 사진 이명호



THE NEXEN univerCITY의 로비가 평소와는 다른 시끌벅적한 소리로 가득 메워졌다. '우당탕탕, 까르르르' 간간이 직원들의 말소리와 발소리만 들렸던 중앙연구소에서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온다. 이곳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아빠는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

아빠와 오래간만의 캠핑 나들이에 아이들은 초흥분 상태였다. 더군다나 캠핑 장소가 자랑스러운 우리 아빠가 일하는 일터라는 사실이 아이들을 더 흥분시키는 듯했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재질재질 질문을 던졌다.

가족들은 미디어 월 앞에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다른 가족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며 잠시 후 시작될 캠핑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로비에 모여 있는 가족들에게 행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 후 '아빠와 함께 1박 2일' 캠핑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로에 대한 호칭도 오늘날은 선임님, 책임님이 아닌 세운 아빠, 원영 아빠와 같이 아이의 아빠로 부르기로 통일했다. 아빠들은 자신의 자녀를 살뜰하게 챙기며 나눠 받은 이름표를 아이의 가슴에 달아주었다. 다음은 텐트 추첨이 이어졌다. 아이들이 직접 추첨하고 텐트를 확인한 후에는 아빠의 일터인 THE NEXEN univerCITY 내부를 가까이서 구경해볼 수 있는 'CITY 투어'가 시작됐다. 꼭 닮은 모습의 아빠와 아이는 손을 잡고 로비에서 출발해 북카페를 한 바퀴 돌고 난 후 즐지어 위층으로 향했다.

"우와 바퀴!" 아이들은 전시된 타이어를 보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바퀴 신기하지?" 아빠들은 신기해하는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설명해주며 이동하는 동안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다. 중앙연구소의 더 깊은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아이들은 엄마를 뒤로하고 오롯이 아빠와 시간을 보내며 발걸음을 옮겼다. THE NEXEN univerCITY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은 처음 와보는 아빠의 직장을 체험했다. 피트니스 센터, 휴식 공간, 대강당 등 각각의 기능을 아빠가 설명해주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다. 'CITY 투어'의 마지막은 아빠가 실제로 일하는 사무실에서 아빠의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아이들이 낯을 가려 쑥스러워하기도 했지만 사무실은 아이의 등장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아빠랑 같이 놀아볼까?

내부 구경을 모두 마친 가족들은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진 뒤 3층 로비로 향했다. 중정이 창밖으로 보이는 3층 로비에 도착하자 아이들에게서 환호성이 터졌다. 중정 잔디 위에는 아빠와 아이들의 캠핑을 위한 텐트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바깥공기를 쐬던 넓은 중정은 곧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다. 21개 팀의 가족들은 각자가 추첨으로 뽑은 번호의 텐트에 자리를 잡고 텐트

꾸미기에 돌입했다. 설 새 없이 말을 하며 뛰놀던 아이들은 어느새 꾸미기에 집중해 문패를 쓰고 텐트 장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곳곳에서 가지각색의 우리 가족 텐트가 완성됐다. 각자 꾸민 텐트에 대해 설명한 후에는 출출해진 배를 달래기 위해 함께 김밥을 만들어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서툴지만 아빠와 함께 꼭꼭 눌러서 김밥을 마는 아이들의 손끝이 야무졌다. 식사 후

이어진 오리엔테이션을 끝으로 하루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RE개발1팀 김형진 팀장은 "회사에서 이런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가 회사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 아빠로서의 자부심도 느껴졌습니다"라며 행사에 참여한 짧은 소감을 전했다. 아이들 역시 "너무 신나고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또 왔으면 좋겠어요"라며 한껏 오른 흥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밤이 깊어가고 아빠와 함께 아늑한 텐트 안에 웅기웅기 누운 아이들은 잠들기 전까지 아빠와의 시간을 즐겼다. 행사는 마무리 되었지만 아빠의 회사에서 보낸 색다른 하룻밤이 아이의 기억 속에 예쁘고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





작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얀 종이,
즉 백지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는
무언가를 시작하려 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얀 백지와 같은 상태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지요.

하지만 조금 관점을 바꾸어보면 어떨까요?
새하얀 백지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이 백지에 내가 무엇이든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설레지 않나요?

이 백지 위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백지를 백지인 채로 내버려둘 수도 있고,
그 백지 위에 당신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채워갈 수도 있습니다.

오로지 당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이 백지 위에
소중하고 귀한 당신을 나타내보세요.

삶을 바꾸는 관점

성과와 실패, 관점과 태도에 달렸다

카카오톡 자문, 삼성전자 마케팅 전략 고문, 우아한형제들 커뮤니케이션 홍보이사,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 마케팅 전략 고문, 대상트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전략 고문 등을 거칠 수 있었던 나의 비결은 관점이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 역시 관점이다.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패를 대하는 태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글 박용후 관점디자이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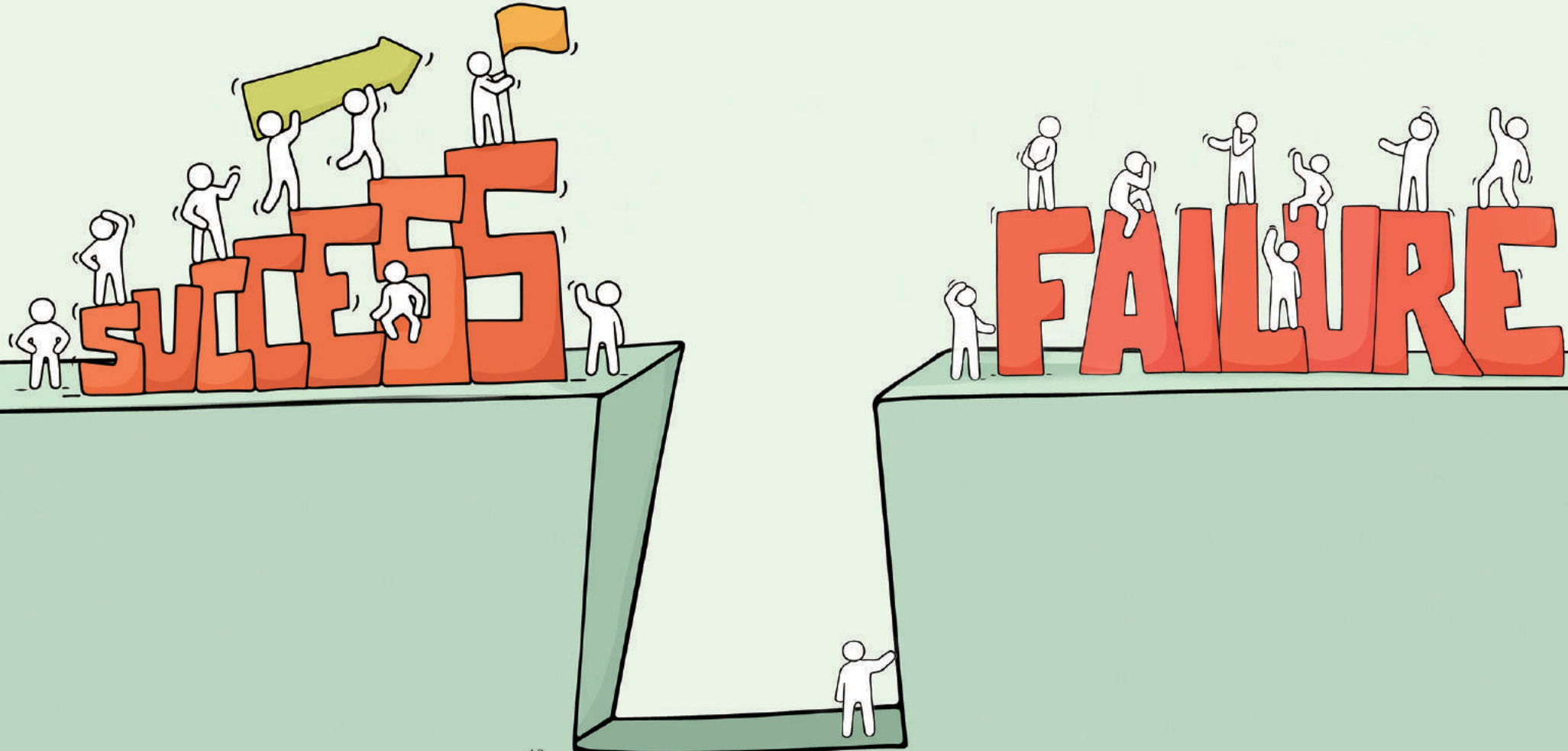


내가 벌여놓은 것은 무엇일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는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지금 조달에 문제가 생겨 사업을 접었다. 집에서 백수로 지내던 나에게 어머니는 "그 나이가 되도록 무엇을 벌여놨나?"라고 호통을 치셨다. 나이 먹은 아들이 참 한심해 보였을 것이다. 그때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무엇을 벌여놓았는지 생각해보았다. 고심 끝에 "난 친구를 벌여놓았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니의 화만 키웠다. 하지만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벌다'에서 돈을 빼고 계산하라!

우리는 '벌었다'라는 표현을 만나면 보통 금전적인 것부터 먼저 머리에 떠올린다. 그러나 내 생각은 조금 달랐다. '벌었다'라는 표현에서 돈을 빼고 생각해야 제대로 번 것이 보인다. 우리는 지식도 벌고, 경험도 벌고, 친구도 벌고, 인맥도 벌고, 돈도 번다. 시간과 바뀌는 것들의 가치를 금전적인 것이 아닌 앞으로의 삶에 대한 가치를 중심으로 계산하면 벌여놓은 것들이 제대로 보인다. 이는 개인도, 기업도 마찬가지다. 또한 번 것을 제대로 계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시간을 보는 다른 관점이다. 시간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넘어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다만 시간을 보는 관점과 태도가 다를 뿐이다. 이에 따라 사람의 인생도, 기업의 운명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어떤 사람은 시간과 사람의 마음을 바꿔내고, 지식을 바꿔내고, 실력을 바꿔낸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시간을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못하고 빈 것으로 보내버린다. 이를 '허송세월'이라 부른다. 결국 인생이란 시간과 바뀌는 것들의 가치 총합을 통해 평가된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잠시 생각을 멈추고 질문을 시작하라. '나는 지금 시간과 무엇을 바꾸고 있는가?' 그리고 '바뀌는 것들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 질문이 습관화되면 헛되게 보내는 시간은 눈에 띄게 줄어든다. 또한 어떤 마음으로 시간 속의 상황을 대하고 있는지 스스로의 태도를 살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봐야 한다.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다만 그 힘들음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상황을 다르게 읽어내는 관점과 태도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이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다.



질문이 생각의 방향을 결정한다!

인생을 바꾸는 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질문이다.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생각을 끌고 다니는 것이 바로 질문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생각 앞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자.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 '회사를 옮겨야 하나?',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등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서부터 점심 메뉴를 고르는 아주 사소한 일까지 생각의 맨 앞에는 질문이 있다. 다시 말하면 질문이 생각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 아마도 '정답 찾기' 중심으로 살아온 인생의 관성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생각을 끌고 다니는 질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전제(前提)다. 질문 앞에 있는 의식적 전제와 무의식적 전제는 질문을 완전 다른 방향으로 비꿀 수 있다. 질문 앞에 있는 전제가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질문이 시작되고, 생각은 부정적인 쪽으로 흐른다. 부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현명한 사람은 부정적인 전제로 생각을 출발시키지 않는다.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은 온갖 핑계 대기에 바쁘다. 현대그룹 창업자인 고 정주영 회장은 이 말을 항상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다고 한다.

"된다고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을 안 된다고 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거지. 된다고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기 시작해 해보긴 했어?"

이것이 바로 지금의 현대그룹을 있게 한 질문법이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의 거대 기업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도 이렇게 말한다.

"가난한 사람들과 일하지 마라! 자유를 주면 함정이라 말하고, 작은 비즈니스를 하자고 하면 돈을 별로 못 번다고 말하고, 큰 비즈니스를 하자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한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자고 하면 경험이 없다고 하고, 전통적인 비즈니스를 하자고 하면 레드오션이라 어렵다고 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비즈니스라고 하면 다단계라고 하고, 상점을 함께 운영하자고 하면 자유가 없다고 하고, 신규 사업을 하자고 하면 자신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한다."

난 이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고 정주영 회장이 옳았구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일을 시작하면 핑계를 찾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일을 시작하면 방법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배달의민족'에는 이런 문구가 여러 곳에 붙어 있다.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 게 없다.' 지금 생각해도 정곡을 찌르는 표현이다.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부정적인 사람이 성공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시작하고 성공한 모습을 머릿속에 제대로 그려낸다. 그리고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 현재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한다.



현재를 미래와 연결하여 생각하기

미래(未來)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아닐 미(未)'라는 글자와 '올래(來)'라는 글자가 합쳐진 이 단어는 글자 뜻 자체가 '오지 않았다'는 말이다. 우리는 미래를 아직은 오지 않은,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이미지라고 여기고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환상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미지로 그려지던 것들을 현재에서 만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려지는 미래의 모습을 현실과 연결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

미래를 또렷하게 상상하면 할수록 현재 해야 할 일도 명확해지고 또렷해진다. 현실에서 안절부절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미래가 불확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한 다음 거꾸로 계산해 현실에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멋진 미래를 만든다. 시간이 흐른다고 모두 미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어떻게 흐르게 했는지 나 자신의 미래가 된다. 내가 시간과 바뀔 것들의 가치와 내가 이루고 싶은 미래의 가치를 비교하며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야 진정으로 원하는 미래를 만날 수 있다.

스티브 잡스는 스탠퍼드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Connecting the dots!" 인생에 쓸모없는 우연은 없다는 이 말은 현실을 대하는 태도를 점검하는 인두 같은 문장으로 항상 간직하고 있다. 현재는 어느 순간의 미래와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다. 현재를 다르게 보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로 살면 분명 연결된 미래가 바뀔 것이라는 확신이 현실을 귀하게 여기게 만들고 미래를 바꾼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이 말로 마무리했다. "Stay Foolish! Stay Hungry!" 겸손해라. 절실해라. 난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나 자신에게 절실하게 현재를 받아들이 수 있냐고 묻는다. 그리고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산다. 순간순간 심표를 찍고 "난 절실하게 현재를 살고 있는가?" 묻는 것은 중요하다. 절실하면 모든 것이 스승이 되고, 절실하면 모든 것이 나를 돕는다. 배우지 못하는 것도, 성장하지 못하는 것도 대부분 절실함의 결여에서 온다. 절실하게 미래와 연결된 현재를 살아내라. 그리고 항상 긍정적 전제로 생각을 출발시켜라. 순간순간 내 질문을 살피고, 질문 앞 전제를 살펴라. 인생은 반드시 바뀐다. ㉞

내 인생에 흑 하고 들어온 나의 인생작

어떤 작품은 금방 잊히고, 또 어떤 작품은 꽤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작품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도 합니다. 어떤 영화를 본 순간, 어떤 음악을 들은 순간, 어떤 책을 본 순간, 어떤 드라마를 본 순간... 당신 인생의 순간순간을 눈부시게 만들어준 나의 인생작은 무엇인가요?

정리 이다영

재료연구팀
김혜정 책임연구원의
인생 책을 소개합니다

나의 인생작 :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조앤 K. 롤링



지극히 혜정적인 감상평

독서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해리포터> 시리즈만큼은 10번 이상 읽었을 정도로 좋아합니다. 혹자는 판타지 소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해리포터> 시리즈는 해리포터라는 주인공의 인생에 관한 드라마에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해리포터> 시리즈 중에 세 번째인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를 가장 좋아하는데, 이야기가 지루할 틈 없이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연결되어 마지막 장을 덮을 때까지 손에서 책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 번씩 책을 읽고 싶어도 펼치면 끝까지 읽지 않고는 덮을 수 없는 성격 때문에, 시간 여유가 없을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읽고 싶어도 참는 편입니다. 넥센타이어 사우들도 <해리포터>를 읽으며 저와 같은 기분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는 세 번째 시리즈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시리즈를 읽을 자신이 없다면 영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먼저 보시고 책은 세 번째 시리즈만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남은 책 속 구절

DOBBY IS FREE. (도비는 자유예요)

김혜정's Comment

책에는 정말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저는 특히 스네이프와 도비를 좋아합니다. 스네이프는 처음에는 나쁜 일에 가담하지만 후에 반성하고 그것을 바로잡는 데 인생을 바치는 반전 있는 인물로 해리포터 시리즈의 진짜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도비는 아무도 응원하지 않지만 자신의 운명을 헤쳐나가는 인물이라서 좋아하는데, 그중에 도비의 명언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도 사무실 한구석에서 조용히 외쳐봅니다. "혜정 is free!"

(CP) 전기파트
우정훈 사우의
인생 책을 소개합니다

나의 인생작 :
나를 없애버리고 싶을 때
우수진



지극히 정훈적인 감상평

자려고 이불 속에 들어가면 차가운 발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오늘은 집에 돌아가면 바로 자야지 하고선 침대에 누우면 이리 뒤척거리고 저리 뒤척거리면서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그러면 침대 머리맡에 있는 스탠드를 켵니다. 겨우 글자만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빛을 조절하고, 짧게 짧게 읽을 수 있는 에세이를 읽습니다. 이번 가을에 저와 함께하고 있는 에세이는 우수진 작가의 <나를 없애버리고 싶을 때>입니다. 이 책은 특이한 매력이 있습니다. 한 개만 읽고 자야지 하고선 두 개, 세 개 계속 읽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일부러 하나만 읽는다는 수칙을 세우고, 하나만 읽고 떠오르는 게 있으면 그 생각만 붙들고 잠이 들 때까지 멍 때리기를 합니다. 30대 여자가 쓴 에세이인데, 신기하게도 글 속에서 제 모습이 보이고 주위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넥센타이어 식구들에게 저의 이번 가을 인생작을 추천합니다. 2019년 겨울 발이 차가워서 쉽게 잠들지 못할 때, 가볍게 침대 스탠드 불빛 아래서 짧게 빠져들어 읽었다가 꿈곰이 생각에 빠져 멍 때리며 스르륵 잠들게 하는 수면제 같은 책입니다.

마음에 남은 책 속 구절

타인에게 따뜻함을 표현하려면 인간은 입꼬리를 들어 올려 웃어야 한다. ... (중략) 얼굴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가 무표정이다. ... (중략) 그런데 중립이 아니라 마이너스로 평가받는다. 웃는 얼굴은 '난 괜찮아, 난 기분 좋은 상태야'가 아니라 '넌 괜찮아'라고 봐야 더 맞다. 미소는 내가 괜찮은 상태일 때 상대방에게 '저 괜찮습니다'를 보여주는 데 쓰이기보다는 상대를 안심시키는 데 더 큰 역할을 한다. 우리 관계에서 '나는 당신을 꽤 괜찮게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 나에게 괜찮으니까 괜한 걱정 말아요'라는 뜻이 더 통용된다. 상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의 무표정에 자괴감을 느껴버리는 게 인간이다. 자신이 환영받지 못했다는 느낌에 휩싸인다.

우정훈's Comment

특히 '무표정'이라는 챕터를 읽을 때 한참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척 우울하고 힘들었던 시간에 한 동료가 툭 하고 이런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런 표정으로 있을 거면 모임에 왜 나와요? 분위기 망치잖아요." 아마도 제 표정이 무표정에 가까운 어정쩡한 얼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약해져 있었던 때라서 그런지 그 말 한마디는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표정이라는 게 뭘까요? 이 챕터를 읽고 난 후 나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 생각해봤습니다. 회사에서 상사를 대할 때 표정, 회사에서 친한 동료를 대할 때 표정, 집에 가서 어머니를 대할 때, 아버지를 대할 때, 초등학교 동창을 대할 때, 소개팅에서 처음 만난 상대 여성을 대할 때, 여동생이나 누나를 대할 때, 시시때때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표정을 지어 보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얼굴에 눈, 코, 입에 집중하다 보니 잠이 들었고, 따뜻한 발이 느껴졌습니다. 잠이 스르륵 들 때 마지막 남은 의식으로 따뜻한 발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차평가팀

송계주 수석연구원의 인생 영화를 소개합니다

나의 인생작 :

인생

감독 : 장예모
출연 : 공리, 갈우



지극히 계주적인 감상평

영화는 1940년대(국공내전), 1950년대(대약진 운동), 1960년대(문화대혁명), 이렇게 총 3단계로 나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담고 있는 이 영화는 부유한 지주의 아들로 태어난 푸구이(갈우)가 도박으로 모든 재산을 탕진해 아내(공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음을 다잡은 푸구이 곁으로 가족들은 다시 돌아오지만 역사의 시기적 요소들로 인해 역경은 끝없이 푸구이의 삶을 뒤흔듭니다.

중국의 1940~70년대까지 국공내전,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으로 인한 대혼란의 시기에 보통 사람들이 잔잔히 살아가는 인생을 담고 있으며, 그 인생 안에서 가슴 아픈 사연들이 우리의 마음 한구석을 찡하게 합니다. 대혼란의 중국 근대에 살았던 보통 사람들의 인생을 잔잔하게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남은 영화 속 대사



할아버지 이 안에서 더 잘 자랄 거야.
손자 병아리가 자라면?
할아버지 자라면 거위가 되지. 거위가 자라면 양이 되고 양 다음은 소가 될 거야.
손자 소 다음은?

송계주's Comment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손자와 할아버지의 대화입니다. 큰 액션 없이 주고받는 대사지만 저는 이 장면에서 눈물이 날 듯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느낀 분위기와 잔잔한 감동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레이싱타이어 개발팀

박한준 팀장의 인생 영화를 소개합니다

나의 인생작 :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감독 : 빅터 플레밍
출연 : 클라크 게이블, 비비안 리



지극히 한준적인 감상평

영화나 연극을 보는 것으로 피로를 해소하는 버릇이 있는 탓에 지금까지 꽤나 많은 영화나 연극을 관람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생긴 버릇인 것 같기는 한데.. 그 시절 중간고사를 앞두고도 보고 싶은 영화가 들어오면 지금은 없어진 단성사나 피카디리 극장을 자주 찾곤 했지요. 대개는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여서 가방을 숨기고 들어가다가 재수없는 날엔 걸리고는 했는데, 지금 돌아켜보면 우스꽝스럽기까지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작품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을 꼽는다면 아마도 감수성 예민한 학창 시절에 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 일이네요.

비교적 입장이 수월했던 집 근처 재개봉관에서 보았는데, 지금과 비교한다면 보잘것없고 지저분하기까지 한 3류 영화관이었지만 커다란 스크린에서 펼쳐지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광활함과 스칼렛 오히라를 연기한 비비안 리의 조각 같은 아름다움에 반해 3시간 내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원작은 마거릿 미첼의 <Gone with the wind>인데, 수필가이자 번역가로 유명한 서강대 장영희 교수의 부친이신 장왕록 교수께서 번역하셔서 우리나라에 소개된 소설입니다. 한글 제목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로 번역되어 원작보다 더 멋있는 제목이라고 얘기되곤 했죠.

마음에 남은 영화 속 대사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결국, 내일은 또 다른 날이다.)

박한준's Comment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조그만 둔덕 위 나무 밑에서 석양을 바라보는 비비안 리의 뒷모습과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라는 비비안 리의 대사가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어릴 적 추억은 대개 아름답게 채색되곤 하죠. 많은 사춘기 고등학생이 그렇듯 저도 그 시절의 하루하루가 길게만 느껴졌고 앞날에 대한 불안이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영화가 제 기억에 오래오래 남아 있는 모양입니다.

추천

새로운 시작,
그 특별한 하루를 열어줄

넥센인을 위한 문화생활

어느덧 새로운 해가 찾아왔다.
매년 맞는 새해에는 늘 무엇인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은 욕구가 마구 솟구친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자.
새해에는 새로운 즐거움이 부여되어야 한다.
넥센인의 새로운 시작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문화생활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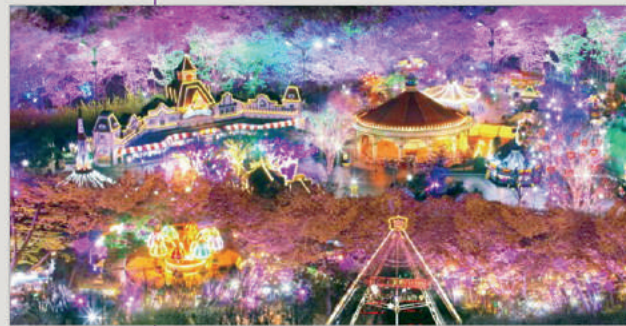
정리 이다영



눈과 얼음 그리고 송어가 함께하는 겨울 이야기
평창 송어축제

송어축제에서는 삶을 축제로 승화시킨 눈과 얼음, 송어가 함께하는 겨울 이야기가 펼쳐진다. 송어 낚시와 썰매 체험 등 다양하게 준비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며 진정한 겨울을 만끽하고 싶다면 평창으로 떠나보자.

기간 2019.12.21 ~ 2020.02.02
장소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경강로 3562
문의 033-336-4000



천만 송이의 꽃빛 정원
이월드 별빛축제

전국에서 가장 빠른 크리스마스 축제와 더불어 아름다운 꽃빛의 풍경으로 추억을 장식하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대구 이월드를 찾아보자.

기간 2019.11.16 ~ 2020.03.01
장소 대구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200
문의 053-620-0001

공연



대한민국을 사로잡은
디즈니의 야심작
뮤지컬 **아이다**

2005년 한국 초연 이후, 14년간 큰 사랑을 받아온 뮤지컬 <아이다>가 2019의 공연을 마지막으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는다. 전쟁 중에 피어난 사랑을 그려가는 뮤지컬 <아이다>는 스토리, 캐릭터, 뮤지컬 넘버뿐만 아니라 무대 전체를 구성하는 조명, 음악, 안무까지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윤공주, 아이비, 최재림 등 실력과 뮤지컬 배우들의 캐스팅도 눈여겨볼 만하다. 마지막 시즌인 이번 무대의 감동을 당신의 일상에 녹여보는 것은 어떨까?

기간 2019.11.16 ~ 2020.02.23
장소 서울시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
문의 1544-1591



가장 비극적이지만,
가장 아름다웠던 화가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는 37년의 짧지만 강렬한 삶을 살았던 천재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이야기를 무대에 펼쳐낸다. 공연은 생전 고흐의 고뇌,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한 700여 통의 편지와 그가 남긴 명작들을 통해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시킨다. 선우정아가 작곡한 감성적인 음악부터 3D 프로젝션 매핑 등 최첨단 영상 기술로 재현해낸 고흐의 명작까지,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작품임에 틀림없다. 쓸쓸하지만 아름다운 반 고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자.

기간 2019.12.07 ~ 2020.03.01
장소 서울시 예스24스테이지1관
문의 1544-6399



트롯걸들의 총출동
내일은 **미스트롯 전국투어 콘서트**

어르신들의 아이돌, <미스트롯> 히로인들의 전국투어가 시작됐다. 제2의 트롯 전성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녀들의 열정적인 공연이 진주에서 펼쳐진다. 송가인, 홍자, 정다경 등을 한 해 선세이션을 불러일으킨 트롯걸들의 <미스트롯> 경연곡과 방송에서 선보이지 않은 신곡으로 다양한 무대가 꾸며질 예정이다. 흥이 났다가 서글뻐다가, 청중을 휘어잡는 트롯걸들의 멋진 공연으로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기간 2020.02.15
장소 경남 진주실내체육관
문의 1544-1555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전한 세상'의 재현
완전한 세상**

모두가 꿈꾸고 동경하지만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미지의 대상인 완전한 세상. <완전한 세상 (Maximalia)>은 이러한 이상에 불과한 장소를 미디어를 통해 재현해낸다. 예술과 첨단 과학이 융합하여 창조해낸 새로운 유토피아와 8,000만 개의 LED 발광 다이오드가 뿜어내는 디지털 사위의 장관은 관람객의 눈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특별함으로 무장한 곳곳에 카메라를 가져다 대기만 해도 인생샷을 건질 수 있다고 하니, 이 전시를 통해 특별한 추억과 새로운 감각을 일깨워보자.

기간 2019.08.14~2020.02.16
장소 부산시뮤지엄다문의 051-731-3302



**아이와 함께 온몸으로 만들어보는
특별한 피자
거인피자**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에서 아쉽게 준비한 거인피자 (Zant Pizza)는 대형 피자를 완성해보는 놀이 형태의 체험 전시로 이루어져 있다. 창작 그룹 아리송의 작품으로, 시각적 연관성을 찾아 피자 속 재료로 새롭게 각색된 일상의 사물들을 사용해 토핑을 엮는다. 아이가 놀이 작품을 체험함으로써 창작 활동의 기본인 '다르게 보기'를 경험할 수 있다. 아이에게 놀이 활동과 함께 예술적 체험을 선사하고 싶다면 이 전시를 눈여겨 보자.

기간 2019.11.29~2020.02.16
장소 경남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문의 051-731-3302

**흔해빠진 거짓에 대한 탐구
보통의 거짓말**

석파정서울미술관의 기획전 <보통의 거짓말 Ordinary Lie>에는 '거짓말', 더 정확히는 '거짓말을 하는 행위'에 주목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23명의 작가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거짓에 대한 탐구와 발상을 자유롭게 표현해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양한 생각과 고민을 이끌어낸다.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흔해빠진 거짓에 대해 함께 탐구해볼 의향이 있다면 이 전시를 찾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를 추천한다.

기간 2019.10.29~2020.02.16
장소 서울시 석파정서울미술관
문의 02-395-0100



**황선미,
마음에 심는 꽃**

밀리언셀러 <마당을 나온 암탉>의 저자, 동화작가 황선미의 신간이 출간됐다. 시골에 사는 소녀와 도시에서 이사온 소년의 사랑과 우정을 담은 성장 소설 <마음에 심는 꽃>. 사실적이면서도 섬세한 심리 묘사를 통해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며 사랑받은 그녀가 다시 한번 독자들을 맑고 고요했던 시간 속으로 안내한다. 누구에게나 있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한때를 떠올리게 하는 이 책을 통해 추억의 한편에 덧붙이는 것은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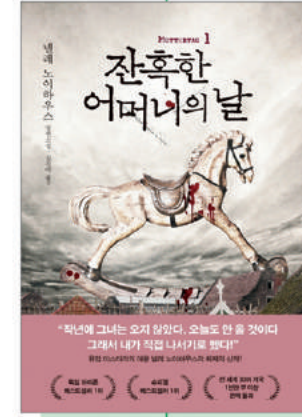
#시골소녀도시소년 #순수
#한편의수채화 #아름다운한때 #추억



**김윤정,
개떡같이 말하면 개떡같이
알아듣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든지 내면의 진짜 나의 모습을 직면해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해줄 <개떡같이 말하면 개떡같이 알아듣습니다>가 출간됐다. 저자인 대한민국 제1호 공감통역사 김윤정은 관계에서 비롯되는 마음의 문제들에 초점을 맞춰 어설픈 위로보다는 냉정한 조언으로 해법을 제시한다. 책 속의 뼈 때리는 충고와 조언을 통해 '나만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다들 그렇게 살았구나'라는 위로와 힐링을 전달받아 이 책을 인생의 사용설명서로 활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배아파 #관계 #소통 #공감 #위로
#힐링 #그렇게말하면못알아듣지



**넬레 노이하우스,
잔혹한 어머니의 날**

독일을 넘어 전 세계를 매혹시킨 유럽 미스터리 장르의 여왕, 넬레 노이하우스의 최신작 <잔혹한 어머니의 날>이 출간됐다.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의 명성을 잇는 명품 스릴러로 첫 장면에서부터 파격적인 짜릿함을 선사한다. 결코 지루할 틈 없이 전개되는 탄탄한 스토리의 서사가 읽는 사람의 손에 땀이 마르지 않게 만든다. 또한 노인의 고독사, 아동 학대 문제 등을 다루며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날카롭게 관찰하고, 인간관계와 사회에 대한 통찰과 사색의 기회를 안겨준다.

#독거노인의죽음 #사람배
#살인 #연쇄살인범 #미스터리



**김병수,
마흔, 마음 공부를 시작했다**

인생의 두 번째 사춘기에서 겪는 낯선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한 책, <마흔, 마음 공부를 시작했다>. 이 책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병수 원장이 삶의 변곡점에서 온전히 나답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 마흔, 젊음의 패기가 아닌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고 싶다면, 이 책을 읽으며 나를 들여다보는 계기를 만들어보자.

#변화무서워
#나한테도마흔이오겠지
#삶의주도권 #내삶의제국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곳, 창녕 우포늪

고요한 자연 속 생명의 소리를 따라

봄이면 새로이 돌아나는 수초들의 활기참, 가을이면 자욱이 피어나는 물안개의 청초함,
그리고 겨울이면 철새의 이동으로 느껴볼 수 있는 쓸쓸한 장관까지,
우포늪은 계절에 따라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으로 자연 생태계의 보고라 볼 수 있다.
그 신비한 생태계 현장을 느껴보기 위해 겨울의 우포늪을 직접 찾아가 보았다.

글 김세원 기자 사진 김세원 기자 · 창녕군청 취재협조 창녕군청



우포늪은 다양한 철새와 가시연꽃, 자라풀 등을 비롯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다양한 동식물이 있다고 인정받아 1998년 람사르습지로 선정되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보존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우포늪 주변 대합면, 이방면, 유어면, 대지면 등 4개 면 13개 마을이 람사르습지 도시로 인정되었다. 여름에는 생이가래, 마름 등으로 온 늪이 초록으로 물드는 우포늪은 겨울이면 철새를 맞이하기 위해 그 자리를 비운다. 단풍마저 떨어진 우포의 겨울은 쓸쓸해 보이지만 이내 기다렸던 철새와 매서운 바람에도 부드럽게 흔들리는 억새로 가득 찬다.

1억 4,000만 년의 역사, 창녕 우포늪

'국내 최대 크기의 내륙습지'인 우포늪은 그 수식어에 걸맞게 큰 호수로 보일 정도다. 우포·목포·사지포(3포)와 쪽지벌·산박벌(2벌)을 통칭해 우포늪이라 부를 정도니, 직접



보지 않아도 그 크기가 짐작된다. 넓은 우포를 보고 있다면 우포늪은 처음부터 이렇게 컸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잠시 빙하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우포늪은 낙동강으로 흐르는 많은 하천 중 토평천에서 생겼다. 그 당시에는 해수면이 전체적으로 더 낮았다가 빙하기가 풀리면서 낙동강 일대의 해수면이 갑자기 높아졌다. 이런 이유로 토평천에서 낙동강으로 빠져나가야 할 물이 빠지지 못하고 범람했고, 이때 우포늪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 범람한 곳만큼씩 늪의 범위가 넓어졌다. 워낙 크다 보니 강이나 바다처럼 가운데로 갈수록 수위가 깊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포늪은 전체적으로 평평한 바닥을 갖고 있다. 김정선 창녕군 문화관광해설사의 말을 빌리자면 "이제는 1년에 2~3번의 홍수 때를 제외하곤 물이 잘 빠져서, 들어가면 꼬르륵 하고 빠지는 펄 형태가 아니라 단단한 모래 바닥"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포 땅을 밟고 논우렁이를 잡을 수 있다. 우포늪 근처 마을인 세진리에서 빙하기 때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어 이곳의 역사는 약 1억 4,000만 년 정도로 추정된다. 길을 가다 발에 차이는 돌 중에 1억 4,000만 년의 역사를 가진 돌이 있을지도 모르니 유심히 살펴보자.

지루하지 않아 걷기 좋은 길

생태관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생명길 코스는 8.4km로 3시간 정도 걸리는 긴 코스지만 그만큼 우포늪의 다양한 모습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 시작점인 생태관에서 5분 정도 걷다 보면 자전거를 타며 우포늪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자전거 2코스가 나온다. 큰길이 끝나는 잠수교 전까지만 자전거 진입이 가능하니 꼭 기억해두자. 대대제방에서 사지포제방으로 가는 길은 바스락거리는 억새로 가득하다. 가는 길 내내 우포늪이 보인다. 컷가로 새들의 합창이 들려온다. 거대한 새 동지 속에 들어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겨울은 우포늪에서 가장 많은 철새를 볼 수 있는 때다. 이 말이 무색하지 않게 걷는 곳마다 철새들이 보인다. 청머리오리를 시작으로 큰기러기, 노랑부리저어새 등이 같은 종끼리 웅기종기 모여 먹이를 먹는다. 추위에도 철새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우포늪이 크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 1 생태관 쪽보다 철새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주매제방.
- 2 자전거를 타며 우포를 볼 수 있는 자전거 1코스가 속해 있는 대대제방.
- 3 망원경을 통해 우포늪을 관찰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길 구성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휴길을 지나면 숲길이 나오고 마을길이 나온다. 사지포에서 주매제방으로 넘어가는 길은 가파른 언덕에 나무들이 가득 들어선 숲길이다. 그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이 '사랑나무'인데, 역인 나뭇가지 모양을 유심히 살피면 하트 모양이 보인다고 해서 사랑나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나무 앞에서 사랑을 맹세하면 그 사랑이 영원히 간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새해를 맞아 부부나 가족이 함께 방문해 애정을 돈독히 다져도 좋겠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곳

사지포언덕에서 내려와 주매제방에 들어서자 김정선 해설사가 "생태관 쪽보다 오히려 주매제방에서 철새들을 보는 경우가 더 많다"고 귀뜸해준다. 생태관 쪽에서는 보지 못했던 고니가 기다렸다는 듯 날개를 펴덕이며 존재감을 드러낸다. 소목마을 쪽으로 걸음을 옮기면 나루터가 하나 나온다. 우포늪의 명물 '장대배' 서너 대가 대어져 있다.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 늪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배를 젓는데, 우포늪의 수심이 얕아 장대로 밀며 이동한다고 해서 이름이 붙었다.



2



3

- 1 사지포언덕에 있는 사랑나무.
- 2 우포늪 생명길에서 바라본 전경.
- 3 소목나루터에서는 우포늪의 명물 '장대배'를 볼 수 있다.

우포늪은 사진 찍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명소인데, 특히 새벽 물안개 속 장대배 젓는 어부 사진이 유명하다. 김정선 해설사는 "장대배를 젓는 어부들은 많지만, 주영학 환경지킴이 분이 모델을 해야 사진이 잘 나온다는 말이 많다"고 말한다. 수십 년간 우포늪을 지켜온 애정이 서린 덕분일지도 모르겠다. 나루터를 지나면 바로 소목마을이다. 숲을 보며 걷다 만난 마을은 낯선 느낌이지만 이곳 주민들은 누구보다 우포늪과 조화를 이뤄 살아가고 있다. 아직 우포늪에서 어업 활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어업 활동이 허락된 사람은 열 명 남짓뿐인데,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3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어업이 금지된다. 목포제방을 지나면 머지않아 작은 징검다리가 나온다. 건너편으로 보이는 사초군락지와 버드나무 때문인지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기분이다. 몇 년 전까지 사초군락지는 사람 한 명이 지나다니기도 힘든 좁은 길이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 길이 넓어졌다. 람사르습지 도시로 인증된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초와 버드나무를 보다 보면 평소 보기 힘든 보라색과 파란색이 섞인 알록달록한 큰 바위가 보인다. 이곳은 '부영덤'이라 불리는 곳인데, 부영이가 실제로 앉아 있는 곳이라고 한다. 부영덤을 지나 생명길 끝자락쯤 따오기 복원센터가 보인다.

창녕군은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따오기를 중국에서 2마리 데려와 지난 10년 동안 363마리의 따오기를 복원해냈다. 현재 창녕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복원센터를 관람할 수 있다. 관심이 있다면 신청해 따오기를 먼저 만나는 것도 좋겠다. ㉞

〈헬로우 넥센〉사보 속에 숨어 있는 정답을 찾아라

넥 센

Q

u

i

Z



〈헬로우 넥센〉을 애독하는 넥센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퀴즈! 초성 퀴즈에 도전해보세요. 읽었던 내용도 다시 한번, 지나쳤던 내용도 다시 한번, 사보도 보고 퀴즈도 맞히고 선물까지 받아가는 행운을 놓치지 마세요.

클 이디영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넥센타이어 봉사동호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ㅎ ㅁ ㄴ ㄴ ㅁ

힌트 김장 봉사 페이지를 유심히 봐주세요.



제45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 현장개선부문에서 대통령상 금상을 수상한 넥센타이어의 분임조 이름은 무엇일까요?

ㅍ ㅂ ㅅ

힌트 격한 운동을 했을 때 이것이 비 오듯 흘러내립니다.

※ 퀴즈의 정답을 적어서 사진으로 찍은 후 이메일 hellonexen@nexentire.co.kr로 보내주세요.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기재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
행 복했던 하루도,
그럭저럭 버텨낸 하루도,
.....
완전히 망한 하루도 결국에는 다 지나가게 됩니다.

.....
지나간 하루에 매어 자책하기보다는
새롭게 찾아올 날들에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요?
.....

.....
이미 일어난 일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더 흥미진진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



.....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뜨는 것처럼
당신에게도 다시 새로운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

새로운 시작, 2020 새해에 대해 묻다

넥센인의 새해는 어떤가요?



신년에는 뭐니 뭐니 해도 운동, 체중감량, 취미생활, 연애 등의 목표 세우기가 제격이지요. 넥센인은 어떤 새해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새해를 다채롭게 채워줄 넥센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정리 이다영
2019.11.13 ~ 2019.11.15, 총 185명 참여(중복 응답 가능)

Q 즐거운 목표 세우기, 새해에 빠뜨리지 않고 꼭 세우는 목표는?

저축 목표 세우기	44명	19.56%
다이어리 끝까지 쓰기	12명	5.33%
금주, 금연 다짐하기	18명	8%
운동 계획하기	125명	55.55%
기타	26명	11.56%

- 여자친구 만들기 • 정우석
- 작년에 비해 얼마나 발전했는지 피드백 해보기 • 이현기
- 10kg 감량 • 손정윤

Q 또 한 살 늘어난 나이..., 나이를 실감하는 순간은?

이유 없이 계속 피곤할 때	81명	33.2%
TV에 나오는 아이돌 가수의 이름을 모를 때	47명	19.26%
노후가 걱정될 때	56명	22.95%
노는 것도 지칠 때	43명	17.62%
기타	17명	6.97%

- 몇 살인지가 아닌 몇 년생인지로 나이를 따질 때 • 신미진
- 휴대폰 글씨를 보기 위해 자연스럽게 휴대폰이 눈에서 멀어질 때 • 정준욱

Q 새해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넥센인을 춤추게 할 말을 알려주세요.

- 다 잘될 거야 • 오병일
- 우리에게 년 항상 최고야 • 박남
- 야 너 괜찮은 사람이야. 누구에게 맞추려 하지 말고 자신을 위해 살아 • 김봉수
- 아빠~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 • 유민
- 믿고 쓰는 타이어, 넥센타이어~ • 박우진
- 넥센 다녀서 좋겠다 • 오장호
- 사장님 • 조영재
- 너를 보면 늘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 같아~ • 홍상해
- 넥센타이어, 타이어 3사 중 영업이악 1등! • 박서현



Q 나를 깨부수기, 새해에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짜릿한 체험은?

번지점프	32명	17.11%
오지 탐험	54명	28.88%
스카이다이빙	59명	31.55%
홍가공포 체험	10명	5.35%
기타	32명	17.11%

- 사하라 사막 마라톤 • 조익현
- 아내한테 덤비기~!! • 김형진
- 알래스카에서 개 썰매 타보기 • 지서연

Q 나를 괴롭히는 말, 새해에 듣고 싶지 않은 가장 불편한 말은?

"결혼(자녀)은 언제쯤 할(날)을 거야?" 결혼, 자녀 등의 가족계획	39명	17.81%
"어느 집 누구는 이랬다던데... 저랬다던데..." 남과 비교하는 말	44명	20.09%
"얼굴이 그게 뭐야? 살 좀 빼야 (짜야)겠다." 외모, 몸무게에 대한 지적	50명	22.83%
"나 때는 말이야." 시대착오적 듣기 싫은 일장연설	70명	31.96%
기타	16명	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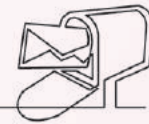
- 정치 얘기 • 최상현
- 너도 나이가 드는구나 • 권봉진

우정과 애정으로 똘똘 뭉친

동료와의 에피소드 대방출

지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주변에 나를 끌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즐거웠던 일도 고마웠던 일도 함께해온 동료와의 에피소드를 <헬로우 넥센>이 전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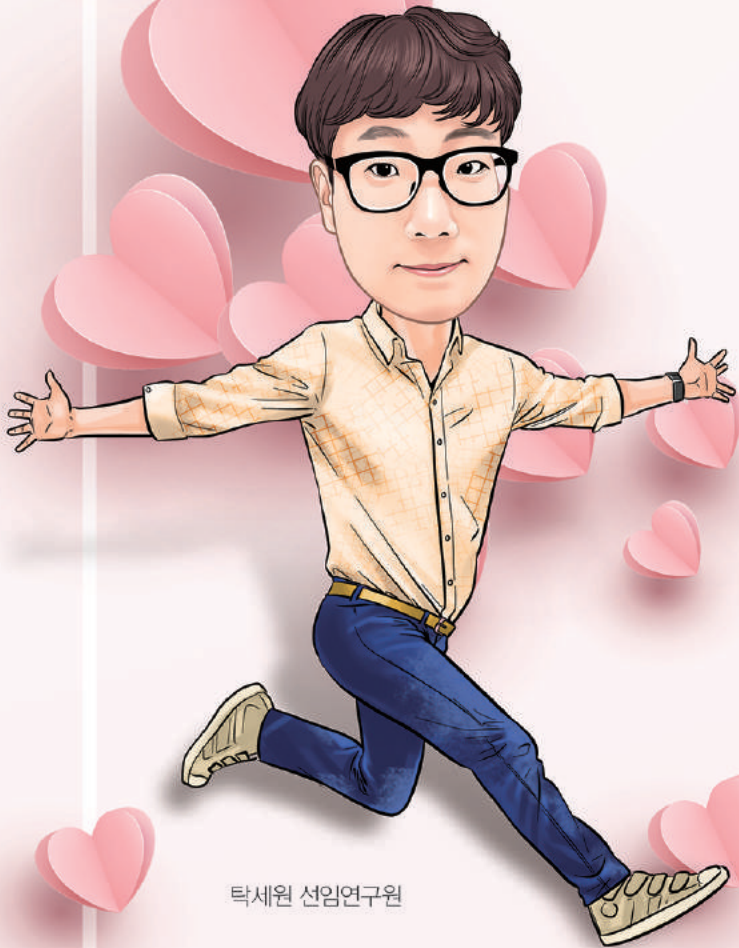
정리 이디영



개발지원팀
탁세원 선임연구원이 보내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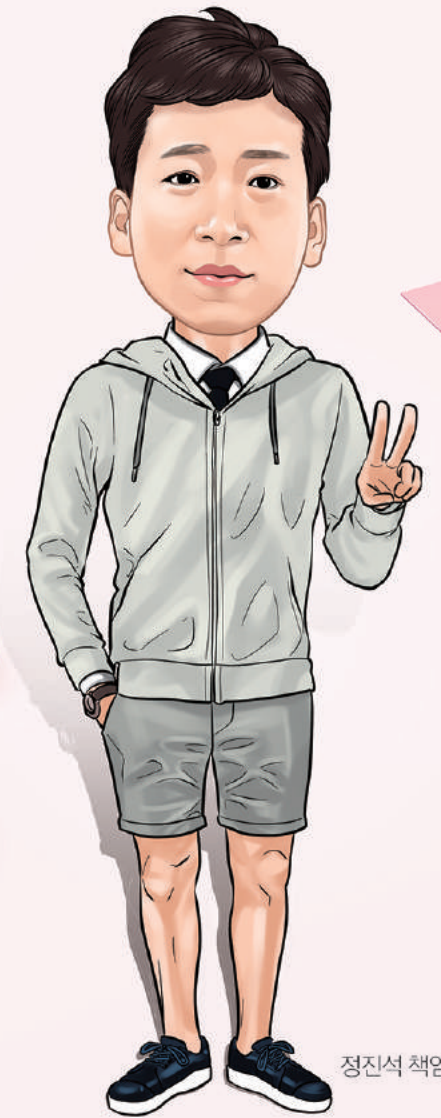
NETC개발지원팀
정진석 책임님과의 사연입니다.

탁세원 선임연구원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체코공장 금형 기술 업무 지원의 일환으로 체코공장 NETC개발지원팀으로 기술지원단 파견을 다녀왔습니다. 유럽 분들과 업무를 진행하고 타지 생활에 적응하는 게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정진석 책임님께서 제가 빠른 정착과 원활한 업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서 길잡이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한국 가정집 음식이 많이 그림고 생각났는데 정진석 책임님과 형수님께서 집으로 초대해주셔서 만찬을 먹으며 담소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변에 가볼 만한 곳도 여러 군데 소개해주신 덕분에 체코 파견 기간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타지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정진석 책임님께 이번 기회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책임님께서 2년 좀 넘게 체코 파견근무가 남았는데, 남은 기간 건강히 잘 보내시고 돌아오시길 기원드립니다. 돌아오시면 꼭 참에 소주 한잔 하시죠! 제가 씁니다~!🍷

정진석 책임



빡하지 않고 Fun한 우리만의 문화 회식

우리는 이렇게 회식합니다!

술자리의 스트레스부터 다음 날 출근의 피곤함까지, 이제 이런 회식은 사라져야 합니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건전한 회식 문화 정착을 위해 넥센이 앞장섭니다. 강요 대신 자발적 참여를, 진탕 마시는 술 대신 생산적인 문화 활동을 시행하고 있는 넥센인의 행복했던 문화 회식 현장을 소개합니다.

정리 이다영



G.MES팀의 문화 회식

짜릿한 루지 체험과 오붓한 티타임

11월 말 팀원들과 양산에 위치한 에덴밸리에서 루지 체험을 하고, 내려오는 길에 찻집에 들러 오붓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운 날씨에 손이 시렸지만 짜릿한 루지 체험, 정말 스릴 만점에 재미도 만점이었습니다. 스트레스도 날려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들 레이싱에 입문할 태세였습니다.ㅋㅋ

생산기획팀의 문화 회식

KT 소닉붐 농구 경기 관람

1990년대 농구대잔치를 회상하면서 팀원들과 즐거운 관람을 했습니다. 농구 관람 전 팀원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치어리더와 함께 사진도 찍고 (회사에선 이렇게 활짝 안 웃으시는데...ㅋ) 예능인 허재도 보고 왔습니다. 남자들에게 둘러싸인 KT 마스코트... 무표정이네요...ㅋ





CP생산기술팀의 문화 회식

늦가을 따끈따끈 참숯가마 워크숍

레일바이크 신나게 달리고, 참숯가마에서 뜨겁게 달구고, 개운한 샤워 후 맛있는 음식,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정말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레일바이크를 타며 노래 한 곡 뽑으니 절로 힐링이 되더군요. 업무 스트레스는 확 날리고, 즐거운 추억을 쌓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계속해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G.생산기술팀의 문화 회식

Trashtag Challenge (흑룡사 근처 환경 미화 활동)

새로운 회식 문화, 환경도 문화도 굿입니다!! 저희 G.생산기술팀은 '깨끗하고 살기 좋은 양산 가꾸기'에 피, 땀, 눈물의 보람찬 하루를 보냈습니다. ^^ 자루 가득 모인 폐기물만큼이나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고가도로 위 위험을 무릅쓰고 환경 미화 중인 열정쟁이들! 🙌



조금 특별한 나만의 이색 취미 “이런 취미 어때요?”

자꾸 하고 싶고, 하고 나면 뿌듯해서 없는 시간을
또개서라도 나의 삶에 들여놓고 싶은 것을
우리는 취미라고 부릅니다. 워라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숨구멍, 나만의 힐링이 꼭 필요하죠.
그렇다면 넥센인들은 어떤 취미로 여가 시간을
채워가고 있을까요? 그들의 조금 특별한
취미를 소개합니다.

정리 이다영

실차평가팀 서범석 선임연구원

그란폰도 (자전거 마라톤)

자전거를 취미로 즐기는 동호인들은 많습니다.
저도 물론 자전거 동호인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란폰도를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평균 획득고도
2,000m 이상 120~130km를 정해진 시간 내에 주파하는
종목으로, 주로 높은 고개가 있는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2019년에는 총 2번 참여했고 모두 완주했습니다. 사진은
10월에 열린 함양 그란폰도입니다. (고개 이름: 자안재)
넥센타이어 자전거 동호인들도 그란폰도에 도전해보세요.



유럽OE기술팀 김병갑 선임

실내 클라이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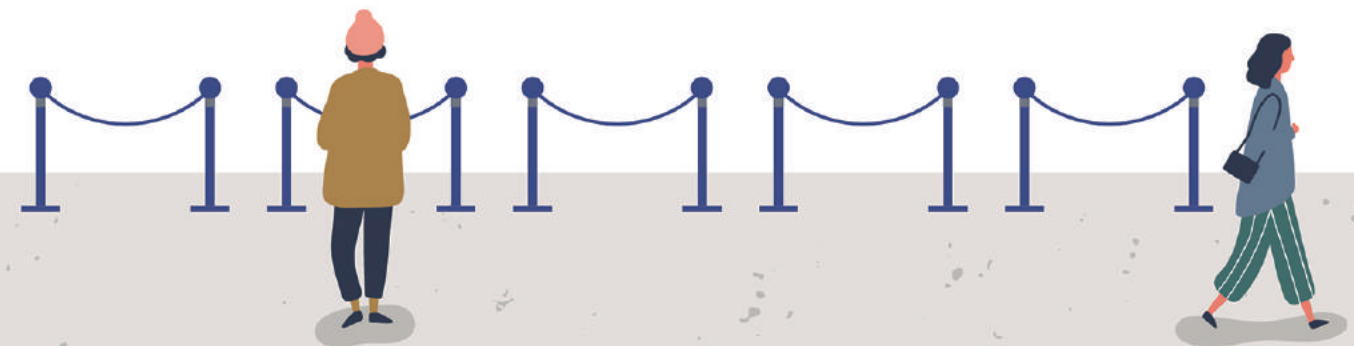
아내와 함께 실내 클라이밍을 배우고 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생기고 아플 때마다 성취감의 희열을
느낍니다. 옮겨올은 클라이밍과 함께 뜨겁게 보낼 계획입니다!



OE영업기획팀 박다민 선임

가족 가방, 가족 소품 만들기

요즘 한창 빠져 있는 취미입니다. 가족 공방에서
가방 만들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 원데이 클래스로
가족 카드 케이스 만들기를 체험한 후, 너무 재미있어서 전문
공방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공방 수업이 있는 날이 기다려질
정도로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숙제도 많고 은근히 체력
소모도 많이 되지만, 한 달에 걸쳐 한 개씩 완성되는 가방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차평가팀 김남웅 선임연구원

맥주 병뚜껑 (Beer bottle cap) 수집

2016년부터 출장이나 여행을 다니면서 그 나라 맥주를 마시고 병뚜껑을 수집했습니다.

현재까지 162종의 맥주를 마셔봤고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맥주에 도전할 생각입니다.

p.s 베스트블레테렌이라고 330ml 맥주 한 병에 4만 5,800원짜리도 있습니다... 맥주계의 명품.



품질경영팀 황익진 수석

한강 횡단 수영대회

우리와 늘 친숙한 한강. 어릴 때부터 한 번쯤은 저 강을 헤엄쳐서 건너고 싶었는데, 느지막한 나이에 꿈을 이루었습니다. 2019년 8월 18일 잠실대교 밑 한강 횡단 수영대회. 화창한 날씨에 대회 전날 많은 비가 와서인지 물도 참 깨끗했습니다. 지방 팀뿐만 아니라 붉은 깃발의 중국 원정 팀도 "짜이오!!" 함성이 들리는 범국제대회에 개인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새해에는 빅센타이어 사우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고객만족팀 유민 선임

동물 관찰 사육

저의 별자리는 물고기자리입니다. 물고기자리는 동물을 좋아하고 동물들 또한 물고기자리를 좋아한다고 하네요^^ 어릴 적부터 동물·곤충을 좋아해서 관찰하고 사육해왔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변함없네요~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레오포드육지거북 2마리와 육지소라게 8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열대 지방에 서식하는 동물이다 보니 온도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말만 되면 집사가 되어 딸과 함께 이것저것 꾸며주고 손봐주고 있네요~ 사우 여러분도 반려동물 키우는 재미를 느껴보시면 좋겠네요^^



인사팀 박성준 선임

아이와 함께 키우는 사슴벌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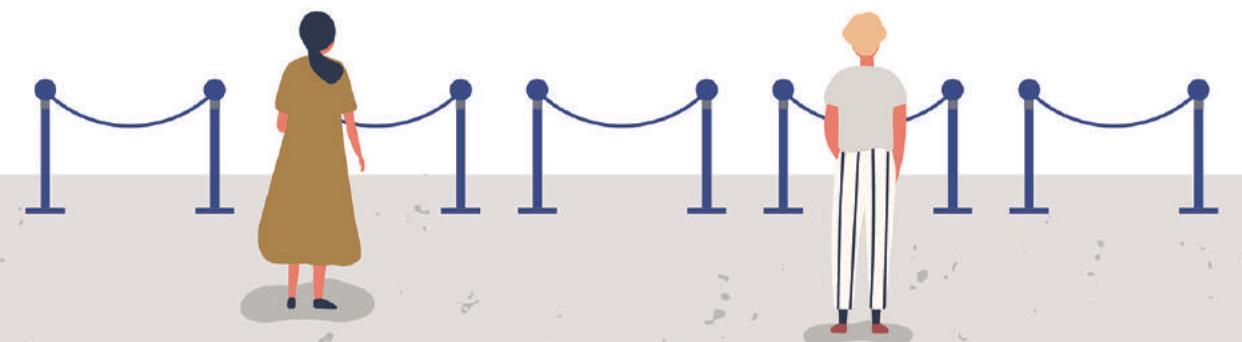
평소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와 함께 자연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 사슴벌레 부부를 선물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사슴벌레를 정성껏 살피는 아들을 보며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개발지원팀 김길성 사원

철인 3종 릴레이 경기 도전

직장 동료 중에 같은 취미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함께 운동하는 동료가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자칭 넥센 3인방 단합을 위해 철인 3종 릴레이 경기에 도전했습니다. 회사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으니 소속감도 생기고 자부심도 생겨나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N



NEXEN TIRE TECH

한결같은 서비스로 일등 매장을 꿈꾸다

타이어테크 양재점

이제 막 출발선에서 한발을 내딛은 신생 매장, 타이어테크 양재점. 오픈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양재점의 이강교 점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 그리고 매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글 이다영 사진 이명호




타이어테크 양재점은 2019년 11월 15일 오픈해 현재 단장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주변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앞으로의 전망은 밝다고 봅니다. 이제 시작하는 매장이다 보니 혼자 운영하고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방문 차량이 많아지면 인력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오프라인 판매인데, 양재점을 오픈하고 판매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일들을 접하며 그것들을 배워가는 재미가 상당합니다. 영업을 센스 있게 잘하는 방법, 기존 판매보다 수량을 늘리는 방법 등을 나름의 연구를 통해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만의 판매 노하우를 살짝 소개하자면 저는 타이어를 등급으로

설명드리며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한 결과 브랜드마다 타이어는 크게 기본형, 일반형, 고급형, 최고급형, 이렇게 등급이 나누어져 출시됩니다. 각각 가격도 품질도 차이가 나는데, 저는 이 등급을 기준으로 고객이 주로 다니는 도로나 상황 여건에 맞춰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매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레귤러 체인에서 제공되는 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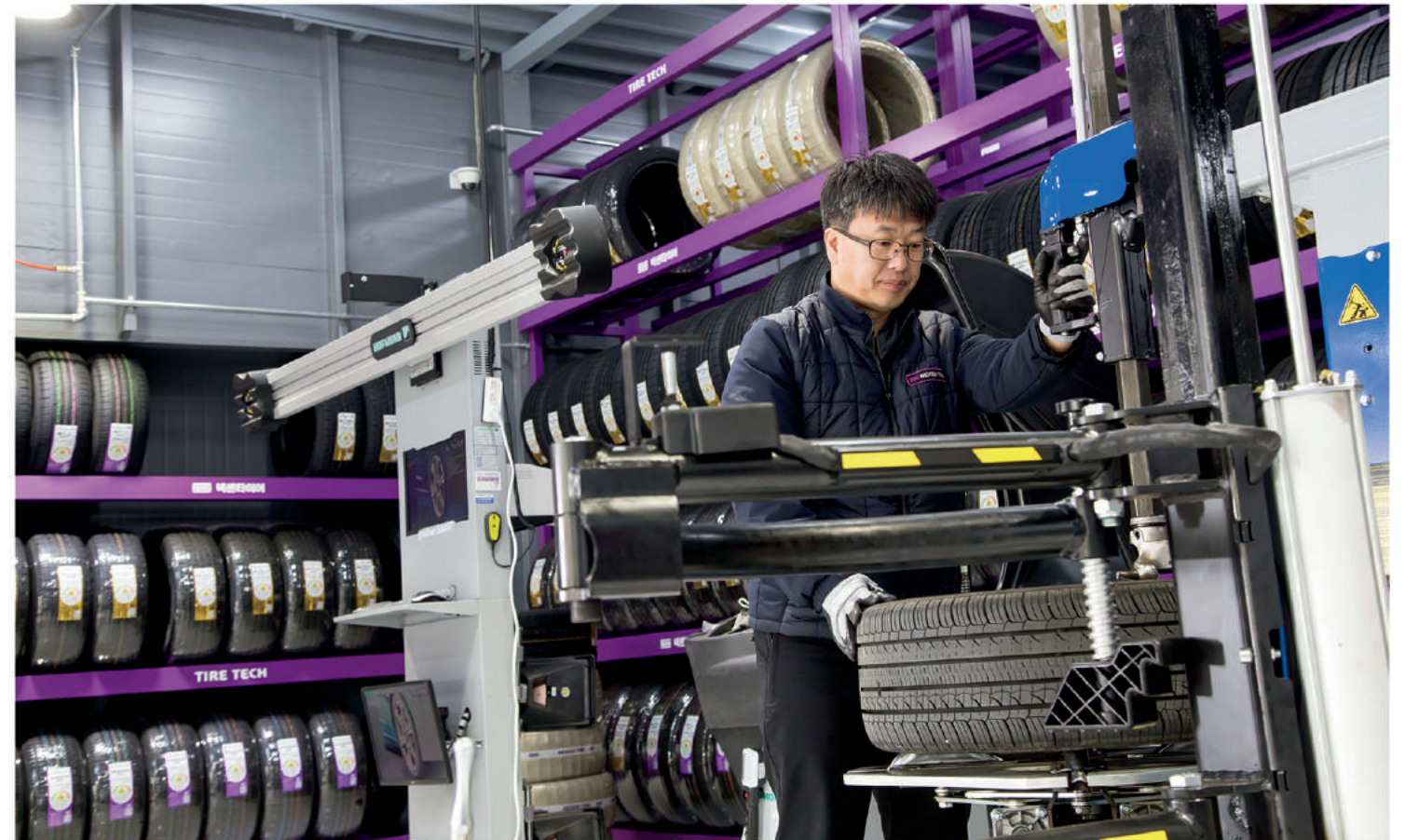


개를 갈든 네 개를 갈든, 저렴한 타이어를 구입하든 고가의 타이어를 구입하든 똑같이 한결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 마음을 항상 되새기면서 고객을 마주합니다. 어떠한 차와 마주한다 해도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런 부분이 소개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신생 매장의 패기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1,000개 매장에서 1등 매장을 꿈꾸며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고객 한분 한분 최선을 다해 한결같은 서비스로 응대할 준비가 되어 있는 타이어테크 양재점입니다. 새해부터 시행될 O2O 서비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

 청소, 타이어 광택, 에어컨 탈취, 워셔액 보충의 4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생 매장이기 때문에 기본부터 충실하게 출발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본을 다진 후 새해 1월에는 넥센타이어의 신사업 O2O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O2O 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서비스로, 고객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직접 고객의 집으로 가 차량을 매장으로 가져오고 타이어 교환 후 다시 가져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와 더불어 주변에 사무실 단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으니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을 이용해 업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균일한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타이어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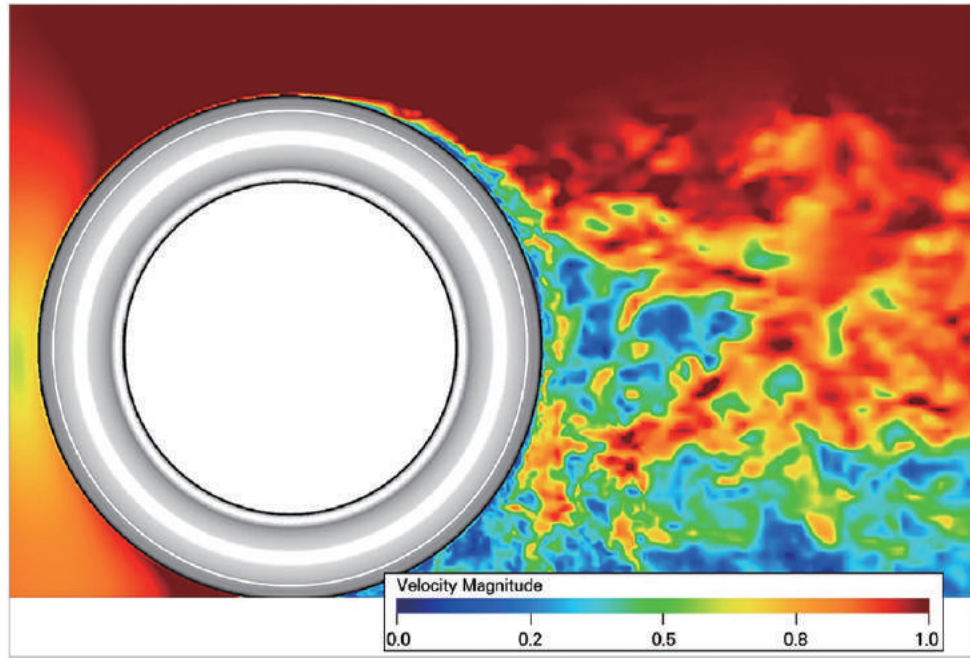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210
 영업시간 평일 · 토요일 09:00~20:00 / 일요일 10:00~18:00
 문의 02-3462-5989



NEWS

연비 향상을 위한 에어로다이내믹 저감 예측 기술 개발



넥센타이어가 차량 연비 향상을 위한 에어로다이내믹(Aerodynamic)을 저감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 넥센타이어는 에어로다이내믹 저감 예측 설계기술 연구를 위해 글로벌 3D 익스피리언스 기업 '다쏘시스템'과의 공동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 기술은 타이어 제작 전 사전 성능 검토를 위해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전산 유체역학)를 이용한 성능 예측 기법이다. 에어로다이내믹(공력)은 공기역학이라는 의미로 공기 속에서 운동하는 모든 물체는 공기의 흐름에 의해 저항을 받는다. 이는 차량의 연비에 영향을 끼쳐 완성차 업체 및 타이어 제조 업체는 회전 저항뿐 아니라 에어로다이내믹을 저감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연비 향상 기술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형태의 공동 연구개발(R&D) 노력을 통해 개방형 혁신 산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2018년 유럽 및 미국 R&D센터 신축·확장을 비롯해 2019년 4월 서울 마곡지구에 넥센중앙연구소를 오픈하는 등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R&D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NEWS

SUV 주행 특성에 최적화된 사계절용 타이어 '로디안 GTX' 출시



넥센타이어가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SUV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SUV 전용 사계절 타이어 '로디안 GTX'를 출시한다고 10월 7일 밝혔다. SUV 전용 제품으로 선보인 이번 '로디안 GTX'는 기존 제품 대비 제동 성능, 눈길 성능, 마모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했으며, 승차감 또한 크게 개선되어 최적의 밸런스를 자랑한다. 순간적인 고하중 압력과 타이어 변형에서도 트레드 블록이 견딜 수 있는 차세대 신규 컴파운드를 적용해 마모 성능을 크게 강화했다. 또한 지면으로부터의 압력을 분산시키는 지그재그형 트레드 설계로 순간 쓸림 현상을 최소화했으며, 마른 노면에서의 제동 성능 및 눈길 성능을 동시에 보완한 접지 성능 강화로 더욱 안정적인 드라이빙이 가능하도록 했다.

'워크맨' 장성규의 넥센타이어 타이어테크 1일 체험



구독자 350만 명이 넘는 유튜브 인기 채널 장성규의 '워크맨'이 넥센타이어에 땀을 흘렸다. 12월 13일 업로드된 넥센타이어 타이어테크 매장 아르바이트 영상은 타이어테크에서의 업무를 워트 있게 그리며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타이어테크 매장에서
1일 체험을 한 장성규의
'워크맨'이 궁금하다면, 여기~



NEWS

독일 VLN 내구 레이스, V5 클래스에서 준우승 기록



넥센타이어가 독일에서 열린 '2019 VLN 내구 레이스'에서 준우승을 기록하며 타이어의 내구성을 입증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9월 26일(현지 시간) 독일 뉘르부르크링 노르트슐라이페 서킷에서 열린 '2019 VLN 내구 레이스'의 파이널 라운드 V5 클래스에서 넥센타이어의 '엔페라 SS01 SUR1' 제품이 장착된 '포르쉐 카이맨 981' 차량이 2위의 성적을 거뒀다.

'엔페라 SS01 SUR1'은 넥센타이어의 기술력을 집약해 만든 레이싱 전용 타이어로 뛰어난 접지력과 안정적인 핸들링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특징이다. 40년 전통을 자랑하는 VLN 내구 레이스는 총 24,358km에 달하는 서킷을 4시간 동안 무한 질주하는 레이싱 경기다. VLN 내구 레이스에는 세계 유수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해마다 참가해 기술력을 뽐낸다. 넥센타이어는 국내(넥센타이어 스피드 레이싱, CJ 슈퍼레이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대회(포뮬러 드리프트, VLN 내구 레이스)에 레이싱 타이어를 공급하거나 참가 팀을 후원하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다.

NEWS

넥센타이어, 넥슨코리아 'FIFA 온라인 4' 유저 행사인 '버닝 페스티벌' 참여

넥센타이어가 게임회사 넥슨코리아가 개최하는 'FIFA 온라인 4' 유저 행사인 '버닝 페스티벌'에서 현장 부스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12월 21일부터 이틀간 열린 '버닝 페스티벌'에서는 '고등피파 FINAL'과 '창과 방패 LIVE', 그리고 'EACC WINTER 2019(EA Champions Cup Winter 2019) FINAL'이 진행됐다. 특히 'EACC WINTER 2019 FINAL'은 총 상금 20만 달러 규모의 아시아 최대 e스포츠 빅 이벤트 중 하나다. 넥센타이어는 '버닝 페스티벌' 기간 동안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 부스를 설치하고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했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 '맨체스터 시티 FC(이하 맨시티)' 공식 파트너 자격으로 참여한 넥센타이어는 부스 내에 신제품인 SUV 전용 타이어 '로디안(ROADIAN) GTX'를 전시하고 맨시티 포토존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SNS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되었다. 넥센타이어와 넥슨은 각각 맨시티 구단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함께 이벤트에 참여하는 등 협력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㉞

참여해주세요

- ☉ <헬로우 넥센>에 참여를 원하는 분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 ▶ 우리 팀 및 동호회 자랑하기
 - ▶ 가족과 특별한 시간 보내기
 - ▶ 동료와 함께 추억 만들기
 참여 및 도움을 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 넥센타이어 홈페이지(www.nexentire.com) 독자 게시판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QR코드를 확인하시면 독자 게시판으로 연결됩니다.

- ☉ <헬로우 넥센> 구독 및 구독 정보 변경을 원하시는 사내외 독자는 넥센타이어 홈페이지의 사보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보 담당자 문화혁신팀 김희진 선임
hellonexen@nexentire.com

<헬로우 넥센> 독자 당첨자
전기영 · 강휘빈 · 박옥희 · 김혜지 · 이구용



2019 글로벌 고객만족도
타이어 부문 10년 연속 1위

타이어 렌탈 서비스 이용해보셨어요?

타이어 언제 교체하세요? 엔진오일은 언제 교체하세요?

타이어가 마모 혹은 파손되어도 무상 교체해주고 엔진오일도 점검에서 교체까지 무상으로 해드립니다.

합리적인 타이어 구매 제안 '타이어 렌탈' 고객님께 딱 맞는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자유 렌탈 고객님의 마음대로 렌탈 상품 설계 가능

문의전화 1855-0100
타이어렌탈

NEXT LEVEL
넥센타이어가 만든 신개념 렌탈서비스

PREMIUM SUV AND
CROSSOVER ALL-SEASON TIRE

ROADIAN GTX

블랙야크처럼
흔들림 없이 압도적인 제동력!

넥센타이어 **ROADIAN GTX** 혁신테크놀로지

01

다양한 기후조건에서
발휘되는 안정된 제동력

02

순간적인 고하중의 압력을
분산시키는 패턴 구조

03

접지 성능 강화를 위한
안전한 사계절 주행

NEXEN NEXEN TIRE